

“미국, 한국 관세인상 관보 게시 부처간 협의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미루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뉴욕으로 떠나기로 앞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준 15%에서 25%로 인상하겠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표를 구체적인 시행

여한구 방미 통상본부장 “대미투자 이행 의지·진전 설명”

의회 인사들과 면담…“한미FTA 공동위 개최 조율 계획”

일정과 함께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가 관보 게재인데,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번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副) 대표와 논의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이후 전화 통화를 했고, 전날 만나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對) 인도 관세 인하 발표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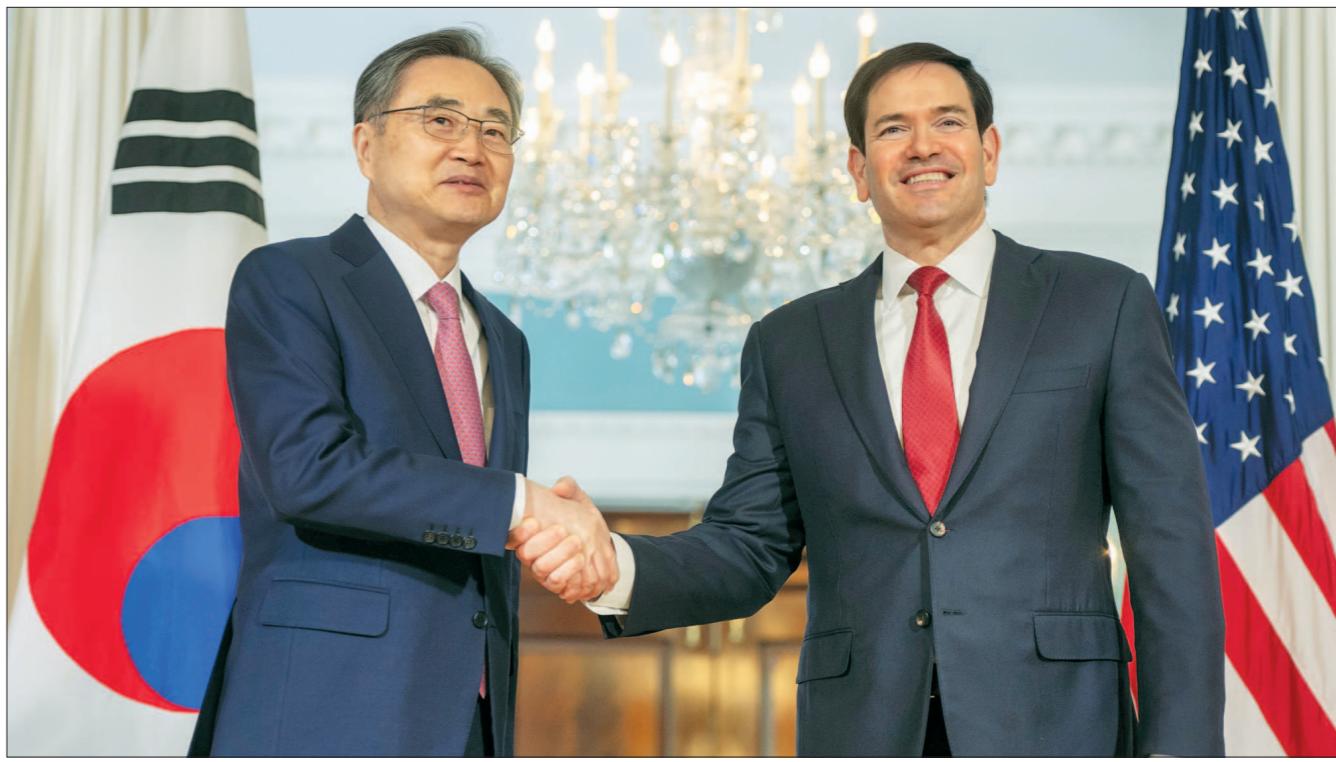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악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관세 부문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미국 측이 ‘쿠팡 사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라는 시각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했다”며 “쿠팡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은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문에 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외신 인터뷰 이후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영향을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 (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미쳤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그런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분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미 정부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SNS가 나왔는지

일정을 다시 잡느냐는 질문에 “그부분도

여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열리려던 연기 논의했다”며 “날짜를 잡는 것도 앞으로는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아베 살해범, 1심 무기징역에 항소

“부당한 판결 시정 기회”

항소심서 ‘신앙’ 쟁점 전망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암마가미 데쓰야가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암마가미 변호인은 이날 “피고와 협의한 결과, 부당한 1심 판결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1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

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며 암마가미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암마가미 변호인 측은 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빠져 고액 현금을 하면서 가정 환경이 불우해졌고, 그가 종교 학대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 이하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지방재판소는 암마가미 모친의 종교 활동이 피고의 인격 형성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합법적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아시히는 지방재판소가 형량에 반영하

지 않았던 피고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항소심 심리의 중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암마가미는 2022년 7월 혼슈 서부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고,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HYUNDAI HI-TEC Industry

www.hdhtec.co.kr

신뢰와 기술을 토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 현대하이텍

고객과의 신뢰 강화와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현대하이텍 본사



현대하이텍 제2공장 기업부설연구소



계열사 : 주식회사 넥스오토

1991년에 설립된 현대하이텍은 Mobility Body Maker로 인화단결, 근면성실, 주인의식이라는 사훈과 품질향상, 기술혁신, 신용확대라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하이텍은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임직원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경영을 추구하여 보다 비전있고 가치있는 회사가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주)현대하이텍 · (주)넥스오토 회장 김용구

HD (주)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Industry Co. Ltd.

· 본사/제1공장/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오선동) · 제2공장/부연구소: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5번좌로 81
· TEL: 062-953-2240 · FAX: 062-952-2186 · e-mail: kq24@daum.net · Homepage: www.hdhtec.co.kr